

경제리더들 “정부, 국민신뢰 잃어”

쇼이블레 “엘리트 불신”
카니 “불평등 해소 못해”
라가르트 “무역과 혁신에 대중 반발... 불평등 불만 불신 시급히 해소해야”

전 세계 금융계 고위인사들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탄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추계총회에 모인 전 세계 금융계 고위인사들은 각국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블라프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CNN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불신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 세계 선진경제국을 보면 국민들이 경제와 정치를 막론하고 지도자 ‘엘리트’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신은 무역과 거래가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는 정부 지도자들이 자분과 자신을 공정하게 배포하지 못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3월 시작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대중의 불신으로 부터 나온 움직임이다.

CNN머니는 대중의 불신이 브렉시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와 미국 대선을 ‘일반적인 불확실성’에서 ‘대형 리스크’로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정부가 대중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불신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신뢰를 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임금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미약한 성장의 과실마저도 고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카니 총재는 이어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장점은 수없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트 IMF 총재도 세계 각국이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가르트 총재는 “세계 각지에서 무역과 혁신에 대한 대중 반발에 주의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느리게,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BBC가 입수한 세계은행(WB) 내부문서에 따르면 WB 경제전문가들도 자유무역이 선진경제국에 경제성

장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계층을 소외시키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무역이 성장과 번성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지만, 선진국 내에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삶이 부모님 세대보다 못하고, 후손들의 삶 역시 그리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무역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국 인프라를 개선할수록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8월 대기업 은행대출 연체율 2.59%

한 달 새 0.28%p 상승... STX중공업 법정관리 여파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또다시 올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2.59%로 한 달 새 0.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은행의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통상 1% 초반대였는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올해 하반기부터 매달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연체를 상승세는 STX조선해양이며 STX중공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새로 연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TX조선과 STX중공업의 법정관

리는 대기업대출 연체율을 각각 1.4%포인트, 0.27%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월에 비해 0.1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은 1.16%로 0.12%포인트 늘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34%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25%였고, 이 중 집단대출 연체율은 0.38%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20%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57%로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뉴시스

이상빈 “미국 금리인상, 한국경제 딜레마”

“경제 고려시 금리 내려야... 자본유출 걱정하면 올려야”
“재정정책으로 대처하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바람직”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본유출 위험 등으로 한국 경제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7일 은행연합회에 기고한 시론 ‘미국 기준금리인상 가능성 관전 포인트’를 통해 향후 한국경제를 좌우할 변수 중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유럽 및 일본은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통화정책의 대분기(大分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신흥국

이 교수는 “미국이 지난 6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 때 원화 환율이 1230원까지 올랐다”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때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걱정한다면 금리는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경기침체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 또는 규제혁파 등으로 대처하고 자본유출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은행 대출 조이자 저축은행 ‘신났다’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여파 2분기 저축은행 순익 전년 비 67.5% 증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시중은행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올해 2분기 저축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79개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2878억원 대비 67.5%(1942억원)나 증가했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2014년 6월 이후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자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47조5000억원, 14.5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0.34%포인트씩 올랐다.

올해 2분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제1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수도권에 원리금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

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이 제도를 적용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부작용은 막지 못했다.

민중위 예보 리스크총괄부 금융시장분석팀장은 “제1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늘었다”며 “2분기 경영실

적은 대출금 이자이익이 3226억원이나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계의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있다”며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저축은행 특성상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의 실적은 부진했다. 2분기 은행권(16개)의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4조3100억원) 46.71%(2조원) 감소했다. /뉴시스

국내 연구진, 친환경 태양전지 소재 개발

한국화학연구원은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문상진 박사 연구팀과 경희대학교 임상형 교수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납(Pb) 성분을 구리(Cu) 금속으로 치환한 소재를 개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반도체·부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

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물질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납이 사용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구리(Cu) 등 다른 금속을 조합, 치밀하고 큰 결정 크기와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 신규 소재를 개발했다. /뉴시스

국립승마센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